

# 中 건너간 싼타페, ‘성다’로 싹~변신... “대륙SUV 제패”

스마트케어링·스마트 싼타페  
현지 소비자 니즈 적극 반영  
최첨단 편의·안전 사양 적용  
시장점유율 10% ↑ ‘톱5’ 목표



현대자동차가 13~14일(현지시간) 중국 해남도 산야 아틀란티스 리조트에서 중국형 신형 싼타페 ‘제4세대 성다’ 신차발표회를 열고 본격 판매를 개시했다고 14일 전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장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제4세대 성다’의 제품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판매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신형 모델을 출시하고 판매량 회복에 집중한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 지문인증 출입시동 기능을 탑재한 중국형 신형 싼타페 ‘성다’로 중국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13~14일(현지시간) 중국 해남도 산야 아틀란티스 리조트에서 현지 언론과 소비자, 회사 관계자 등 모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다 신차 발표회를 열고 본격 판매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장 사장은 “현대차는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개발 철학을 갖고 상품을 개발해왔다”며 “성다는 세계 최초의 지문 인증 출입·시동 시스템을 비롯, 혁신적 신기술과 우수한 공간성,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고 말했다.

성다는 작년 11월 2018 광주우국제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스마트케어링, 스마트 싼타페를 콘셉트로 첨단 기술력과 실내 공간, 웅장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해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성다에는 자동차 열쇠 없이 운

전자의 지문만으로 문을 열고 닫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스마트 지문인증 출입·시동 시스템’이 적용됐다.

운전자의 지문 정보를 이용하는 지문인증 시스템으로 차량 도어 개폐와 차량 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문인증 시 시트와 아웃사이드 미러가 운전

자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성다는 국내 싼타페에 적용하는 2.0 휘발유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조화를 이룬다. 현지에서 도요타, 폭스바겐, 혼다, 포드 등의 브랜드와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성다가 속한 중형 SUV 시장은 2014년 10만대 수준에서 2017년 50만대 수준으로 크게 확대했다.

현대차는 성다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고 현지 ‘톱5’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 중국 합자법인 베이징현대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대차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시도해왔고 성다를 앞세워 재도약할 것”이라며 “최첨단 편의·안전 사양을 적용한 성다가 중국 고급 SUV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쏘렌토·카니발’ 인기 ‘텔루라이드·모하비’ 더해 기아車, RV 시장 고공행진

기아자동차가 글로벌 레저용 차량(RV) 시장에서 판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RV 누적 판매 1500만대를 돌파했다. 기아차가 1990년 처음 출시한 RV 모델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록스타를 시작으로 30년 만에 거둔 성과다. 특히 텔루라이드의 인기와 올해 하반기에는 모하비 부분 변경 모델 출시로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국내외 RV 판매량은 3월 말 기준으로 1496만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월평균 RV 판매가 11만대인 점을 고려하면 1500만대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아차 전체 글로벌 누적 판매량인 4420만여대의 약 34%를 차지한다.

1500만대 가운데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한 물량이 726만여대로 가장 많았고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이 443만여대에 이르는 등 해외 시장에서 약 1170만대가 팔렸다. 국내 판매는 326만여대로 집계됐다.

기아차는 지난 2015년 RV 판매 1000만대 고지를 넘어선 이후 4년여 만에 1500만대 판매라는 기록을 썼다. 이런 대기록에는 RV 3대 차종인 스포티지와 쏘렌토, 카니발의 역할이 컸다.

세 차종의 누적 판매 대수는 스포티지 556만여대, 쏘렌토 328만여대, 카니발 203만여대로 1087만여대에 이른다.

1993년 출시된 스포티지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같은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RV 차종으로 26년간 차명을 바꾸지 않고 4세대까지 이어져 왔다. 한국과 중국, 슬로바키아 등 3개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는 국내서 72만여대, 해외에서는 484만여대가 팔렸다.

쏘렌토는 2002년 첫 출시 이후 현재 3세대 모델이 판매 중으로 국내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다. 쏘렌토 누적 판매는 내수 78만여대, 해외 250만여대로 집계됐다.

글로벌 RV 누적판매 1500만대  
최근 4년만에 500만대 돌파 기록  
스포츠지·쏘렌토·카니발 역할 커  
텔루라이드·모하비까지 기대감 ↑

국내 첫 정통 미니밴으로 탄생한 카니발은 1998년 출시 이후 내수 89만여대, 해외시장 114만여대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기아차의 RV 판매는 텔루라이드와 3세대 쏘울 출시로 라인업이 강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출시한 대형 SUV 텔루라이드는 3월에만 미국 시장에서 5080대가 팔렸고, 3세대 쏘울은 ‘미국 박스카 판매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기아차는 지난달 서울모터쇼에서 양산형 콘셉트카인 ‘모하비 마스터피스’와 ‘SP 시그니처’를 공개해 하반기 이들 차종의 출시에 기대감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스포티지.

▶기아차 쏘렌토.

50 DB그룹창립50주년

도전 50년 · 큰 꿈 100년

# 꿈은 이루어집니다

DB가 당신의 꿈과 함께 합니다

네 꿈을 펼치라

Dream Big

DB